

고창 '도리화 귀경가세' 막 올라

공연·산책·체험·토요문화놀이터 등 즐길거리 풍성

고창 전통문화의 진수를 총체적으로 담은 공연 '도리화 귀경가세(연출 남기성)'가 개막했다. 최근 사적 제145호 고창읍성에서 첫 공연을 시작한 '도리화 귀경가세'의 개막공연에는 박우정 고창군수와 이상호 군의장, 장병식 도의원, 송영래 고창문화원장, 박종은 한국예총 고창군지회장, 이만우 동리문화사업회장과 군민, 관광객 등 200석 공연장에 320여명의 관객이 불러 성황을 이뤘다.

특히 이번 공연에서는 공연 전 문화해설 산책과 새참을 제공하는 '플러스티켓'이라는 이색적인 프로그램으로 참가자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도리화 귀경가세'는 고창 출신의 판소리 이본가 신재효와 그의 제자이자 조선 최초의 여성 판소리꾼인 진채선의 그리움과 예술혼을 다룬 '버라이어티 감성음악'이다.

농악과 기악, 판소리, 인형극은 물론 전국 각지에서 오는 특별 손님들의 화려한 개인기로 볼거리가 풍성하여 지난해에 이

어 전북 한옥지원활동 아간상설공연 사업 고창 대표작으로 선정됐다.

읍성 내부에 설치된 유도등을 따라 내아 공연장을 찾아온 관람객들은 한옥의 고즈넉함을 살린 훌륭한 공연이라며 엄지를 추켜세웠다.

서울에서 온 관객 박보람 씨는 "문화재에서 펼쳐진 공연인 만큼 전통적 분위기가 잘 느껴졌다"며 "관객 입장에서 아름다운 전통 한옥과 고창읍성의 자연 풍광을 함께 즐길 수 있어 아주 좋았다"고 말했다.

올해 '도리화 귀경가세'는 주인공 신재효 역을 맡은 배우 이종하씨를 비롯해 고창에 거주하고 있는 전문 예술인들이 대거 참여했다.

특히 공연 제작을 맡은 고창농악보존회의 경우 고창농악 문화재 이수자들이 직접 무대에 올라 공연의 수준을 한껏 높였다.

공연장을 찾은 주부 문미옥 씨는 "고창읍성을 산책하다가 흥겨운 소리를 따라 찾아왔는데 수준 높은 공연을 관람하게



고창 전통문화의 진수를 총체적으로 담은 공연 '도리화 귀경가세'가 개막해 관객들과 함께 하나되는 신명나는 공연을 펼치고 있다.

되어 함께 온 딸아이에게 좋은 선물이 된 것 같다"면서 "단원들 대부분이 고창 사람들이다"고 하니 고창군민으로서 자부심이 생겼다"고 말했다. 7~8월에는 휴가철을 맞아 금요일에도

공연이 펼쳐진다. 예매는 인터파크(<http://ticket.interpark.com/Ticket/Goods/Info.asp?GoodsCode=16005730>)에서 할 수 있으며 현장 구매도 가능하다. 문의 063-562-2044.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동리국악당, 조통달 명창과 26일 오후 7시 무료 테마공연

고창동리국악당이 조통달 명창과 제자들이 함께하는 명품 공연을 준비했다.

오는 26일 오후 7시 동리국악당 무대에 오르는 '조통달과 제자가 함께하는 시절인연(時節因緣)' 공연은 단전에서 용솨음치는 수리상의 통목으로 마이크 없이도 관객들을 사로잡는 명창 조통달과 그의 소리를 오롯이 전수받은 제자들이 다채로운 공연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번 공연은 조통달 명창과 유태평양을 비롯한 20여명의 제자들이 판소리 뿐 아니라 국악가요, 토막창극 흥보가 중화초장 등을 선보일 예정이며 특히 유태평양과 비보이 그룹 이스트기네스의 재기 넘치는 무대인 '사물놀이와 비보이와 함께하는 비나리'는 신선함과 새로움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 공연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고창문화의전당(063-560-8041)이나 동리국악당(063-560-8065)로 문의하면 된다. 공연은 무료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북무용협회 '젊은 안무자 창작출판' 27일 10개팀 참가 예술적 기량 겨뤄

전북무용협회가 주관하는 '2016 젊은 안무자 창작출판'이 오는 27일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열린다.

이번 출판에는 서울, 대전, 전북, 광주 등 전국적인 무용가들이 참여하며 출판 역사상 최초로 한국 무용 6팀, 현대무용 3팀, 현대·발레 등 10개 팀이 예술적 기량을 펼친다.

경연에는 안무가인 노혜지(바람이 분다), 김선(반올림), 한성(좋은 친구들), 황지혜(어떤 이유, 최은희(달의 바다), 공유민(Roméo@ Juliet), 이승희(연), 김진선(변화를 위한 노력), 유선애(21gram영혼의 무게), 강요요(의중지인) 등이 각기 팀을 이뤄 무대에 오른다.

이와 함께 한국무용협회 남원시지부 김미연 무용단이 축하공연으로 설장구 춤을 선보인다.

이번 경연의 특이사항은 기존시상에 있던 상금을 없애고 팀 신청에 따라 작품제작지원비(총300만원)를 균등하게 배분한다.

또한 대상(전라북도지사상), 최우수상(전주시장상), 안무상(한국무용협회 이사장상), 우수상(한국무용협회 전라북도지회장상) 이외에 남·녀 연기상(전주시의장상)을 신설해 무용가들의 창작활동을 독려한다.

(사)한국무용협회 영광육 전라북도지회장은 "오늘의 춤 축제가 초석이 되어 우리무용계의 발전은 물론 문화예술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이 자리가 경쟁이 아닌 단체들이 독창적인 무대를 만들어 무용가들의 참신성과 예술성이 표출돼 그 에너지가 관객에게 전달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정해은 기자



화제의 신간

다리로 보는 역사·문화·민속 '한눈에'

새전북신문 이종근 부국장 '한국의 다리 풍경' 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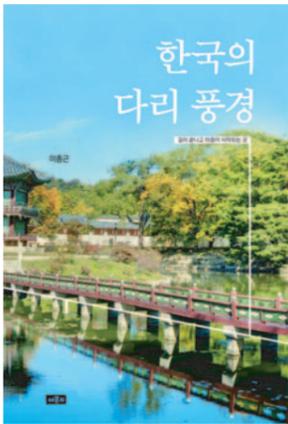
새전북신문 문화교육부 이종근 부국장(한국의 다리 풍경)을 펴냈다. 방일영문화재단의 지원대상을 받아 만든 이 책은 다리를 통해 한국의 역사와 문화, 민속, 회화, 문학 등을 통시적으로 관찰하면서도 새로운 시각을 담았다.

이와 함께 문화재청과 박물관, 각 시군의 협조로 사진 및 역사 정보를 첨부해 기록물로서의 가치도 더했다.

오랜 기간 연구와 현장답사 끝에 출간된 책에는 진천 농다리과 28개의 별자리, 낙안읍성의 평석교와 개 이야기, 광한루 오작교를 통해 본 한국인의 사상, 천은사 수홍부와 세로 편액 이야기, 보안 처녀를 통해 화순 보안교와 민속 및 신앙 등의 내용이 실려 있다.

출판과 관련해 저자는 "각종 다리 축제가 산업(문화관광상품)과 연계 되었으면 하고, 책자 발간을 통해 건축·디자인·인테리어·한국 소개 달력으로 이용됨은 물론 다큐멘터리·간행물·소설·영상미디어 등의 콘텐츠로도 활용되길 바란다"는 바람을 전했다.

"다리는 사람 사이의 이름과 맺음, 그리고 살 냄새, 땀 냄새 흥건히 나는



이야기를 보듬고 있습니다. 이웃 마을에 사는 처녀, 총각이 만나 사랑을 나누던 곳, 길 떠나는 자식을 눈물로 배웅하는 곳, 해 질 녘 장에 간 아버지가 고등어 한 손을 들고 건너는 곳이 있습니다.

때론 여인네의 한이 서러 있기도 하며, 때론 장난 술 한 잔을 걸치고 오는 날이면 누군가는 어김없이 허발을 짚게 만든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옛

사람들이 오갔던 흔적이 바위 틈서리 마다, 수풀 사이마다 뚜렷했다가 또 사라지기도 하는 끈결 같은 길입니다. 물이 불었으면 양말, 신발 벗고 맨종아리로 흥정천의 물을 건너면서 호사를 누리고 싶지 않아요."-본문 18P 중에서.

나선화 문화재청장은 추천사를 통해 "이 책은 역사와 신화, 과거와 현재, 현실과 문화를 경계를 넘나들며 이곳저곳 아름다운 매달린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들려준다"면서 "이 책을 읽고 길을 나서면 풍경에 섞여 있던 다리들이 어제보다는 좀 더 뚜렷하고 정답게 보일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종근 부국장은 전북문인협회 사무국장, 전주시 문화의집 관장, 한국문화의집협회 부이사장, 전민일보 문화부장을 역임하는 등 문화 외견인 생을 걸고 있다.

저서로는 <은고을의 맛, 한국의 맛>, <한국 문화의 집 바로보기>, <한국의 옛집과 꽃담>, <이 땅의 다리 산책> 등이 있다. /정해은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소설가 한강 "맨부커상 수상 전혀 생각 못했다"

한국 작가로는 처음으로 세계 3대 문학상인 '맨부커상'의 인터내셔널 부문을 거머쥔 작가 한강(46)은 "수상할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안 했다"고 말했다.

한 작가는 24일 오전 서울 동교동 카페 꿈마 2호점에서 열린 신작 소설 '흰' 출간 기념 간담회에서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다.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영국에 갈 때는 가벼운 마음이었다"고 밝혔다.

"상을 받고 나서 기뻐해주시거나 고맙다고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헤아려보려고 많은 생각을 한 일주일이었다"고 돌아봤다.

이날 간담회는 '흰'을 출간한 문화동네 임프린트 난다와 한 작가에게 맨부커상을 안긴 '채식주의자'(2007)를 펴낸 참비, 한 작가의 해외 판권을 담당하고 있는 KJ매니지먼트가 함께 주최한 자리다.

한 작가의 구간에 펴내고, 그 작가의 신간을 준비한 두 군데 출판사가 함께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는 건 이례적이다.

한 작가가 지난 17일(한국시간) 맨부커상을 수상한 이후 '채식주의자'의 선주문은 25만부를 기록했다. 한 작가의 또 다른 대표작 '소년이 온다'(2014·참비)는 선주문 5만장으로 집계됐다. /이성주 기자



동물의 지능

홍주미 백운철학연구소 소장 H.P: 010-6890-1468, 홈페이지: <http://www.philsilab.com/>

<2016년 5월 25일>



▷쥐띠

46년생: 처음에는 좋은 운이나 후반에는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질 수 있는 운이니 주의하라.
60년생: 적극적으로 진행하면 좋은 결실이 따르는 운이다.
72년생: 말과 행동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84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시비가 따르오니 주변을 살피면서 진행하라.



▷용띠

52년생: 주변을 자세히 관찰하고 기회를 놓치지 마라.
64년생: 생각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되 혼자 움직이는 것이 좋을 것이다.
76년생: 약자에게 선함을 베풀면 좋은 일이 생기는 운이다.
88년생: 뒷사람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운.



▷원숭이띠

56년생: 금전적으로 막혀있는 상황이다.
68년생: 문서에 결실이 비추니 빨리 움직이면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다.
80년생: 급하게 결실을 맺으려고 하지 마라.
92년생: 실수를 범할 수 있으니 꼼꼼하게 살펴봐라.



▷소띠

49년생: 지나친 고집으로 다른 사람과 충돌할 수 있다.
61년생: 여성은 남자로 인해 마음상할 일이 생긴다.
73년생: 모든 일을 조심하고 중요한 일은 신중하게 때를 기다려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85년생: 편 가르키 하는 실수를 범하기 쉬운 때.



▷뱀띠

53년생: 다른 사람과의 불화가 생길 수 있는 운.
65년생: 앞으로 나아가기도 뒤로 물러서기도 못하는 운이니 때를 기다려라.
77년생: 처분하게 생각하고 마음을 다스려라.
89년생: 내면적으로는 불안한 운이니 욕심은 금물.



▷뱀띠

57년생: 손재수가 따르는 운.
69년생: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마라.
81년생: 무리하면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운이니 쉬어가면서 움직여라.
93년생: 동기인과 사이가 멀어질 수 있는 운이다.



▷호랑이띠

50년생: 집착은 금물.
62년생: 금전운이 좋이지니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
74년생: 다른 사람과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고 서로 답답해 할 수 있으니 함께 도모하는 일은 불리하다.
86년생: 금전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으니 투기나 투지는 불리하다.



▷말띠

54년생: 이상을 주의하지 않으면 구설에 휘말리게 되니 거리를 두어라.
66년생: 금전적으로 손재수가 있다.
78년생: 문서를 주고 받는 일에는 아주 좋은 운이다.
90년생: 작은 일에 대해서는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운이니 추진하라.



▷개띠

46년생: 속으로만 알고 있지 말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보는 것이 좋겠다.
58년생: 건강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운이다.
70년생: 부지런히 움직이면 결과를 얻는다.
82년생: 운전하는 사람은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운.



▷토끼띠

51년생: 건강에 대한 주의를 요하는 운.
63년생: 양보하고 타협하는 것에 중점을 두라.
75년생: 도와주는 사람이 생기는 운이니 어려움도 잘 넘어갈 것이다.
87년생: 동기인과 함께 화합하는 일은 좋은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



▷양띠

55년생: 상황에 대한 권태를 느낄 수 있는 운.
67년생: 상황의 추이를 지켜보고 행동하라.
79년생: 뒷사람의 덕이 있는 운이니 혼자 고민하지 말고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겠다.
91년생: 여성은 남성으로 인해 힘든 일이 발생할 수 있다.



▷돼지띠

47년생: 사소한 욕심으로 큰 것을 잃을 수 있다.
59년생: 뒷사람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때.
71년생: 이상과의 불화가 생길 수 있으니 후반에는 다시 화합할 수 있겠다.
83년생: 초심을 잃지 마라.